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6. 11. 21. ~ 11. 27.

전남농업정보

112

VOL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김장배추 최근 가격 및 산지 동향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국산 딸기 신품종 금실 홍콩 첫 수출
- 버섯 수출확대, 포장개선 및 신선도 · 품질 강조해 중국 · 동남아 공략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이제는 차(茶)를 마시면서 입는 시대이다
- 팔바구미로부터 팔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온도 찾아내

정책동향

- 도내 식품가공 현장 애로기술 연구 협력 추진
- 시·군·구 단계, 모든 시·군에 상황실 운영

사업신청 및 홍보

- 겨울철 재해는 이렇게 예방하세요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5도, 최고기온: 9~1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1~2mm)보다 적겠음

❁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김장배추 최근 가격 및 산지동향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0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2

- ▶ 전남도, 전남 친환경농업 6차산업화 전국 최고
- ▶ 여수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 ▶ 순천시, 낙안배 단지, 최고품질 과실로 인정받아
- ▶ 나주시, 시설하우스 농가 현장중심 영농기술 교육실시
- ▶ 광양시,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으로 농업활로 찾아
- ▶ 고흥군, 전남도 귀농·귀촌 유치 평가 우수기관 선정
- ▶ 화순군, AI 사전 예방 방역 팔 걷었다
- ▶ 해남군, 청정해남 절임배추로 김장하세요
- ▶ 신안군, 임자뜨란 고인숙대표 농업분야 신지식인 선정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1

- ▶ 국산 딸기 신품종 '금실' 홍콩 첫 수출
- ▶ 버섯 수출확대, 포장개선 및 신선도·품질 강조해 중국·동남아 공략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4

- ▶ 단호박 반축성 무가온재배 최종 적심 마디 설정
- ▶ 절화 작약의 수확 후 장기 저장방법
- ▶ 반축성재배 미니단호박 고품질 출하를 위한 수확적기 및 후숙조건
- ▶ 신품종 육성 흑색토마토 브랜드화 전·후 판매 효과
- ▶ 토양재배 흑색토마토 '헤이-지'의 접목 효과
- ▶ 쌀 브랜드 개선에 따른 소비자 인지도 제고 효과
- ▶ 차나무 『은녹』 (보성16호)
- ▶ 장미 『웨딩마치』 (전남교D1-106)
- ▶ 이제는 차(茶)를 마시면서 입는 시대이다
- ▶ 팔바구미로부터 팔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온도 찾아내
- ▶ 콩을 청예작물로 쓰면 양질의 조사료 생산 가능
- ▶ 생체시계 조절 유전자로 배추 염저항성 향상 구명
- ▶ 천적 이용해 겨울철 해충 미리 방제하세요



❀ 농업·농촌 유망 일자리 직업탐구 39

- ▶ 재활승마치료사 (출처 : 농촌진흥청)

❀ 정책 동향 41

- ▶ 도내 식품가공 현장 애로기술 연구 협력 추진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17~'21) 추진
- ▶ AI 경계 단계, 모든 시·군에 상황실 운영

❀ 해외 농업정보 45

- ▶ 한식 밀키트로 유럽 시장 공략
- ▶ 인도, 우유 생산량 증대를 위한 호르몬제 사용 중단 경고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11. 28.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기술적 매도세 및 미국의 풍부한 재고량으로 인해 4세션 연속 하락하였음.
 - 옥수수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풍부한 사료용 곡물 공급량 및 저조한 수출 전망치에 따라 전일 대비 하락하였음.
 - 대두 :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 가격은 투기적 매수세 및 수출수요로 인해 전일 대비 1.0% 상승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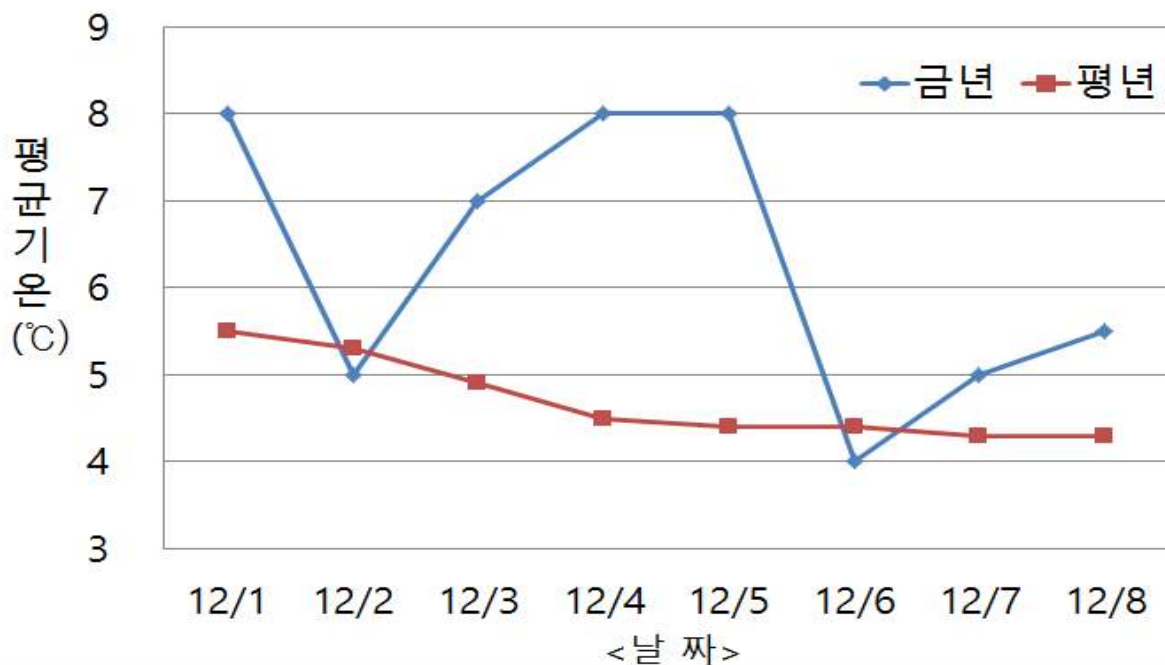
- ▶ 겨울철 재해는 이렇게 예방하세요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6.3	4.7	1.6	10.6	9.9	0.7	2.0	0.5	1.5	1.7
12. 01.(목)	8.0	5.5	2.5	11.0	10.8	0.2	5.0	1.2	3.8	1.5
12. 02.(금)	5.0	5.3	-0.3	10.0	10.7	-0.7	0.0	1.0	-1.0	1.5
12. 03.(토)	7.0	4.9	2.1	13.0	10.3	2.7	1.0	0.6	0.4	1.5
12. 04.(일)	8.0	4.5	3.5	13.0	9.9	3.1	3.0	0.2	2.8	1.9
12. 05.(월)	8.0	4.4	3.6	11.0	9.6	1.4	5.0	0.2	4.8	1.9
12. 06.(화)	4.0	4.4	-0.4	7.0	9.5	-2.5	1.0	0.2	0.8	1.9
12. 07.(수)	5.0	4.3	0.7	10.0	9.3	0.7	0.0	0.1	-0.1	1.7
12. 08.(목)	5.5	4.3	1.2	10.0	9.2	0.8	1.0	0.2	0.8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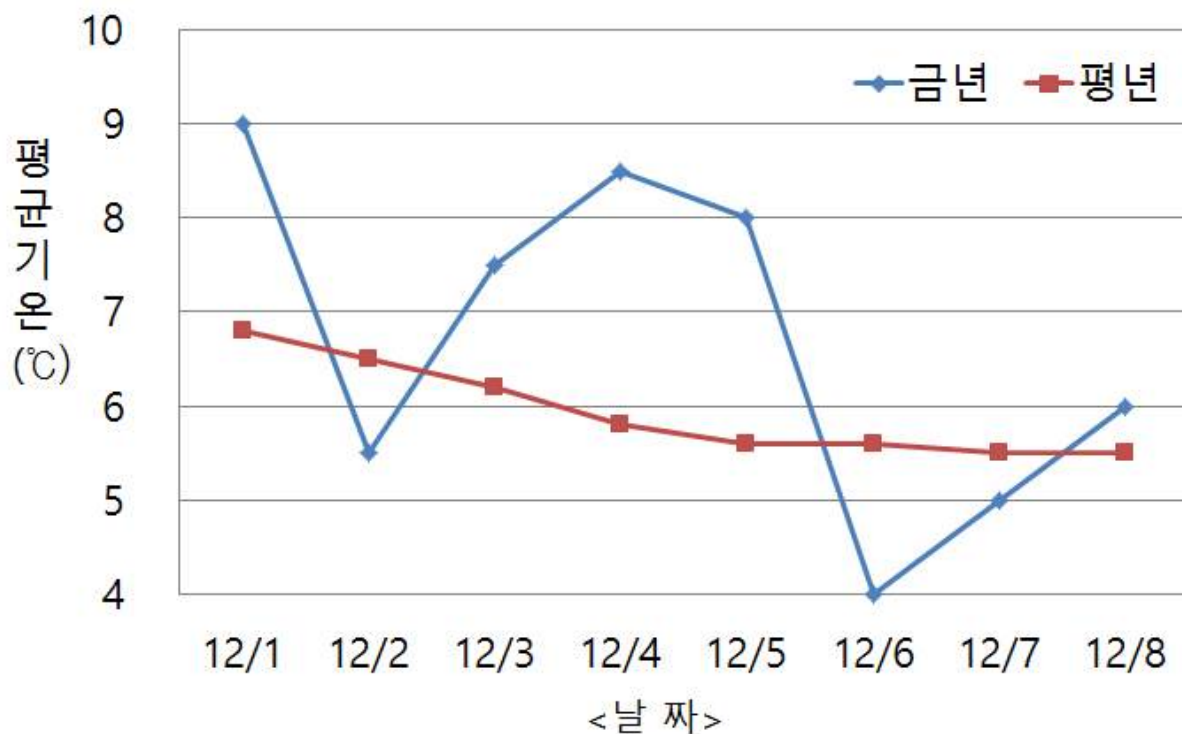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6.7	5.9	0.8	10.6	10.7	-0.1	2.8	2.2	0.6	1.6
12. 01.(목)	9.0	6.8	2.2	11.0	11.6	-0.6	7.0	3.1	3.9	1.2
12. 02.(금)	5.5	6.5	-1.0	10.0	11.4	-1.4	1.0	2.8	-1.8	1.4
12. 03.(토)	7.5	6.2	1.3	13.0	11.1	1.9	2.0	2.4	-0.4	1.4
12. 04.(일)	8.5	5.8	2.7	13.0	10.7	2.3	4.0	2.0	2.0	1.8
12. 05.(월)	8.0	5.6	2.4	11.0	10.4	0.6	5.0	1.9	3.1	1.9
12. 06.(화)	4.0	5.6	-1.6	7.0	10.3	-3.3	1.0	1.8	-0.8	1.9
12. 07.(수)	5.0	5.5	-0.5	10.0	10.2	-0.2	0.0	1.8	-1.8	1.4
12. 08.(목)	6.0	5.5	0.5	10.0	10.2	-0.2	2.0	1.8	0.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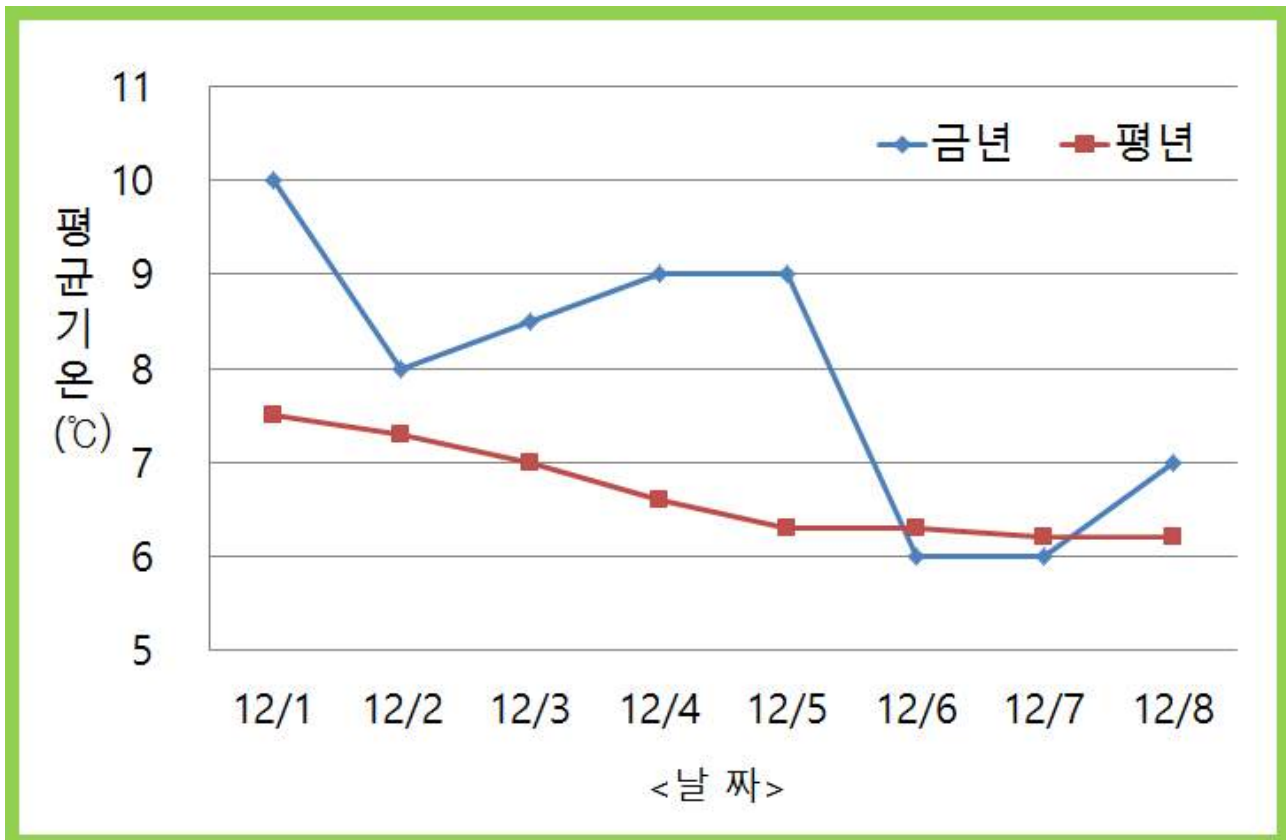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7.9	6.7	1.3	11.5	10.7	0.8	4.4	3.3	1.0	1.1
12. 01.(목)	10.0	7.5	2.5	12.0	11.4	0.6	8.0	4.3	3.7	1.1
12. 02.(금)	8.0	7.3	0.7	12.0	11.3	0.7	4.0	4.0	0.0	0.9
12. 03.(토)	8.5	7.0	1.5	13.0	11.0	2.0	4.0	3.6	0.4	0.9
12. 04.(일)	9.0	6.6	2.4	13.0	10.6	2.4	5.0	3.1	1.9	1.4
12. 05.(월)	9.0	6.3	2.7	12.0	10.4	1.6	6.0	2.9	3.1	1.4
12. 06.(화)	6.0	6.3	-0.3	9.0	10.3	-1.3	3.0	2.9	0.1	1.2
12. 07.(수)	6.0	6.2	-0.2	10.0	10.1	-0.1	2.0	2.9	-0.9	0.9
12. 08.(목)	7.0	6.2	0.8	11.0	10.2	0.8	3.0	3.0	0.0	1.0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김장배추 최근 가격 및 산지동향

□ 가격동향 : 11월 하순(11. 21.~24.) 배추 가격 중순보다 낮아

○ 11월 하순 배추 평균가격은 중순(9,200원/10kg) 보다 낮은 8,550원

- 이번 주 가격은 본격적인 김장 수요 증가와 해남의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나, 이번 주부터 정부의 신선배추 소비지 직공급 등으로 중순 대비 하락
- 다음 주 가격은 산지 출하량 감소 및 김장수요 증가로 이번 주와 비슷할 전망
- 일별 가격 : (11. 1.) 5,330, (11. 11.) 9,150, (11. 18.) 10,990, (11. 23.) 9,130, (11. 24.) 9,400원

□ 산지동향 : 전남·경북·충청지역 작황부진, 강원·전북은 보통

○ (강원) 주 출하지역 : 강릉·춘천

- 산지작황 : 생육기 적절한 강우와 기상으로 작황 보통, 50, 52망 위주로 작업
- 출하동향 : 춘천은 10월 하순부터 출하 시작, 현재까지 출하는 95% 완료, 강릉은 11월 상순부터 출하 시작, 출하는 60% 완료, 12월 상순까지 출하 지속

○ (충청) 주 출하지역 : 당진·아산·충주

- 산지작황 : 당진 작황 보통 수준이나, 충주는 정식 및 생육기 기상악화로 부진, 아산은 초기 생육 양호하였으나, 남은 물량 작황 다소 부진
- 출하동향 : 10월 하순부터 출하 시작, 출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현재까지 85~95% 완료



○ (경북) 주 출하지역 : 문경

- 산지작황 : 정식 및 생육기 기상악화로 작황 부진, 48, 50망 위주로 작업
- 출하동향 : 10월 중순부터 출하 시작, 현재까지 출하는 95% 완료, 이번 주 대부분 마무리

○ (전북) 주 출하지역 : 고창·부안

- 산지작황 : 정식 및 생육기 적절한 강우로 작황 보통
- 출하동향 : 11월 상순 첫 출하 시작, 현재까지 출하는 30% 완료

○ (전남) 주 출하지역 : 해남·진도

- 산지작황 : 생육기 잦은 비로 습해 및 병해 증가, 이른 한파로 작황 부진, 48, 50망 위주로 작업
- * 읍·면별 습해 피해 상황 : 화원·문내 10% 내외, 산이·황산 30% 내외
- * 습해 및 저온으로 인한 생육 저하로 출하시기 5~7일 정도 지연되어 25일 이후부터 본격 출하 예상
- 출하동향 : 11월 중순 일부 첫 출하시작, 김치공장,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출하는 15% 완료

<김장배추 주산지별 작황 및 출하 동향>

지역	주산지시군	작황 상황	주 출하시기	출하진행율
강원	강릉	보통	11월 상순~12월 상순	65% 내외
	춘천	보통	10월 하순~11월 중순	95% 내외
충청	당진, 아산, 충주	다소 부진	10월 하순~11월 중순	85~95% 내외
경북	문경	부진	10월 중순~11월 중순	95% 내외
전북	고창, 부안	보통	11월 중순~12월 상순	30% 내외
전남	해남	부진	11월 중순~12월 상순	15% 내외
	진도	부진	11월 하순~12월 상순	15% 내외

- 주산지별 출하량을 감안하였을 경우, 현재(11. 24.)까지 김장은 약 47% 진행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11. 28.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1/28)	1주일전 (11/2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2,400	32,400	29,680	37,000	42,107	↓ 12.4	↓ 23.1
	콩(백태)	35kg	185,800	186,800	152,000	147,400	167,400	↑ 26.1	↑ 11.0
	고구마(밤)	10kg	24,800	24,800	25,160	21,850	21,563	↑ 13.5	↑ 15.0
	감자(수미)	20kg	30,800	30,600	25,960	25,400	24,733	↑ 21.3	↑ 24.5
채 소 류	배추(가을)	1kg	1,040	1,020	-	528	536	↑ 97.0	↑ 94.0
	양배추	10kg	16,600	16,200	10,680	4,025	4,592	↑ 312.4	↑ 261.5
	오이(다다기계통)	10kg	24,667	19,333	21,000	52,583	34,281	↓ 53.1	↓ 28.0
	애호박	8kg	18,400	18,600	19,520	31,150	23,773	↓ 40.9	↓ 22.6
	토마토	10kg	30,000	28,800	33,600	16,950	24,253	↑ 77.0	↑ 23.7
	당근	20kg	73,600	72,600	50,640	27,000	26,400	↑ 172.6	↑ 178.8
	건고추(화건)	60kg	580,000	580,000	584,000	806,000	895,333	↓ 28.0	↓ 35.2
	풋고추	10kg	60,400	66,600	46,680	33,100	43,607	↑ 82.5	↑ 38.5
	마늘(깐마늘)	20kg	148,000	148,000	140,800	138,000	110,533	↑ 7.2	↑ 33.9
	양파	20kg	20,600	21,000	19,600	34,500	20,213	↓ 40.3	↑ 1.9
	대파	1kg	2,490	2,450	2,236	2,168	1,558	↑ 14.9	↑ 59.8
	파프리카	5kg	23,800	24,200	25,240	17,550	22,640	↑ 35.6	↑ 5.1
	멜론	8kg	26,600	27,200	24,760	27,850	26,657	↓ 4.5	↓ 0.2
	방울토마토	5kg	19,400	23,000	26,680	9,850	14,453	↑ 97.0	↑ 34.2
	수박	1개	15,800	14,000	11,280	13,200	10,050	↑ 19.7	↑ 57.2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7,800	37,800	37,440	34,650	43,109	↑ 9.1	↓ 12.3
	배(신고)	15kg	36,200	36,000	34,800	42,700	42,127	↓ 15.2	↓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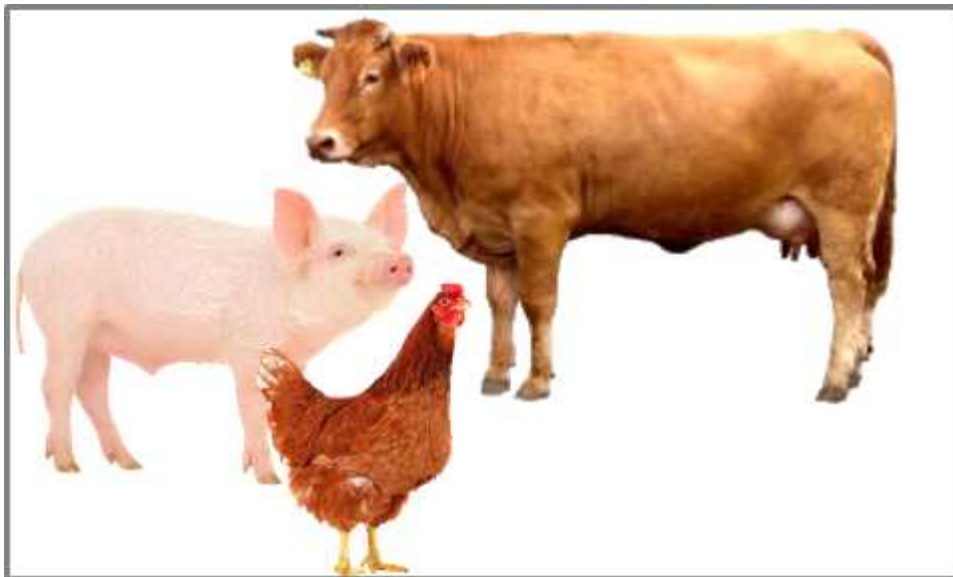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1/28)	1주일전 (11/2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09,600	515,600	514,000	534,000	542,667	↓ 4.6	↓ 6.1
	느타리버섯	2kg	13,800	14,600	13,680	11,450	11,923	↑ 20.5	↑ 15.7
	새송이버섯	2kg	8,200	8,800	9,120	8,300	8,340	↓ 1.2	↓ 1.7
축 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853	7,813	8,031	7,815	6,598	↑ 0.5	↑ 19.0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69	1,909	1,939	2,040	1,863	↓ 8.4	↑ 0.3
	닭고기	1kg	5,320	5,802	5,796	5,168	5,630	↑ 2.9	↓ 5.5
	계란(특란)	30개	5,410	5,427	5,588	5,492	5,631	↓ 1.5	↓ 3.9
	우유	1리터	2,528	2,528	2,525	2,550	2,459	↓ 0.9	↑ 2.8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 도내 사정으로 금주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가격정보는 다음 주 제공 합니다.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전남도, 전남 친환경농업 6차산업화 전국 최고

- 전남도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친환경농업 6차산업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내 영농조합법인이 1위인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시장이 우호적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은 감소 추세에 있어,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산업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6차산업화 경진대회를 올해 처음 개최했다.
- 이에 따라 지난 7월 전국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평가, 3차 발표심사 등을 거쳤다. 이어 이날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된 경진대회에서 여수 거문도해풍썩영농조합법인이 최우수상, 충북 충주 장안농장과 경북 상주 토리식품이 우수상을 수상했고, 순천 덕동원영농조합법인은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 여수 거문도 해풍썩영농조합법인은 거문도에서 자생하는 썩을 타 지역보다 40일 빨리 수확해 농가소득 증대(1만원/1kg)에 기여하고, 썩떡·썩차·썩 분말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썩 캐기, 썩차 시음 등 관광과도 연계해 좋은 사례로 평가받았다.
- 순천 덕동원영농조합법인은 할머니, 할아버지로 구성된 농촌마을의 유희 인력을 활용해 휴경지로 전락한 농지에 돼지감자를 재배하고, 인근 야산에 고사리·취나물·두릅 등 10여 종의 산나물을 상품화한 후 '농가맛집'을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출처 : 전라남도



■ 여수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 시는 친환경농업 실천 결과 감소된 생산량에 대한 소득보전을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생산장려금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을 취득한 농지(1천㎡ 이상)를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해당농가는 인증을 얻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생산량 감소분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인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추진으로 여수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여수시는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과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친환경 유기질비료 869천포(18억 3700만원 상당)와 친환경농업직불금 1억 1,000만원을 지원했다.

* 출처 : 여수시



■ 순천시, 낙안배 단지, 최고품질 과실로 인정받아

- 순천시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16 농업기술보급 종합평가회'에서 낙안배 단지가 뛰어난 품질과 성공적인 단지운영으로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우수단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 23일 한국농업연수원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순천 낙안배 단지는 각 도별로 2단지(채소 1, 과수 1)씩 추천된 총 26개 농산물 생산 단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 낙안배 단지는 지난 2014년부터 30개 농가, 54ha 면적의 생산지에서 신기술(타가접), 기상관측 및 이상기온 대비를 위한 장비 활용, 농약 사용절감, 선진화된 포장 및 선과 작업, 판매처 다양화, 기술교육과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최고품질의 과실을 재배하는데 성공했다.
- 이를 통해 최고품질 단지 사업전인 2013년에 비해 배 생산량이 30%, 최고품질 생산율이 50%나 증가했으며 농가의 판매수익도 대폭 증가해 올해 우수단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이날 시상식에 참가한 낙안배영농조합 안정호 대표는 “낙안배 생산단지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게 돼 대단히 기쁘다”며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큰 만족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출처 : 순천시

■ 나주시, 시설하우스 농가 현장중심 영농기술 교육 실시

- 하우스 내 온·습도 조절로 안개 끼고 이슬 맺히는 문제점 해결하기 -

-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8일 시설하우스 농업인 80여명을 대상으로 제2청사에서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 이날 교육에서는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온에만 집중하다보면 환기에 소홀하게 되어 발생하기 쉬운 곰팡이병 예방을 위해 온·습도계를 활용한 안개감과 이슬 맺힘 문제해결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농사비용 절감기술로 퇴비를 물에 우려내 호기성 미생물을 대량 배양하여 이용하는 퇴비차 활용법은 참여 농업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 또한 배동규 교수(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부)를 강사로 초청하여 비료 영양제 선택하는 법, 미량요소 결핍증 확인과 해소법 등을 교육하여 과학적인 영농기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생태계를 보호하는 적절한 관비재배법과 최적 하우스 환경관리법에 대한 현장교육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나주시



■ 광양시,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으로 농업활로 찾아

- 시는 농산물 수입 개방과 소비감소, 농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기후변화에 맞춘 열대성 과수재배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작목을 발굴해 농업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는 광양읍 사곡리 본정마을에 특색 있는 농촌경관 조성을 통한 어메니티(Amenity) 자원을 확충하고 농가소득으로 연계하기 위해 지중해가 원산지인 라벤다 꽃 단지 3ha를 조성했다. 이어 연차적으로 9ha를 조성해 체험학습 등을 통한 농촌 관광화와 향유(香油) 제조 등 가공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봉강면은 백운저수지를 중심으로 시설원예 부추단지 11.3ha를 조성해 연간 6억 8천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 또한 산간 평지가 많은 옥룡면은 연간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양념 채소로 수익성이 높은 생강 재배단지를 16.3ha 조성해 5억 4천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 옥곡면에서는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좋은 참돌배를 특화하고 20ha에서 173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배즙 등 가공산업과 연계해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 과수농업과 논농업이 발달한 진상면은 일찍이 애호박 시설재배로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이에 더해 봄철 산채류로 각광 받고 있는 취나물 재배단지를 조성해 연간 15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 진월면은 섬진강을 중심으로 시설원예가 활성화 돼 있는 지역 여건을 살려 양상추와 수박·파프리카 등 시설원예 품목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파프리카는 9.3ha에서 연간 1천여 톤을 생산해 이 중 340톤을 수출하는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출처 : 광양시

■ 고흥군, 전남도 귀농·귀촌 유치 평가 우수기관 선정

- 귀농·귀촌인 맞춤형 정착 프로그램 운영 돋보여 -

- 군은 지난 21일 전남도 행정부지사실에서 진행된 귀농·귀촌 유치 평가 시상식에서 포상금 200만원과 함께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군의 귀농인 유치 실적, 전담부서 운영, 박람회 참가 및 협의회 운영활동, 예산 확보, 귀농·귀촌 정보 제공 활동 등 7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 고흥군은 귀농인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원스톱 상담과 빈집·농업 정보제공, 박람회 참가 및 농촌문화체험 기회제공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특히, 귀농·귀촌인들을 신규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귀농 정책 프로그램 운영은 귀농을 희망하는 많은 도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본격적인 귀농인 유치를 시작한 2009년부터 현재까지 1,782명이 귀농하여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에 정착해 나가고 있으며, 매년 도시민 300명 이상 귀농인 유치를 목표로 체계적인 귀농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출처 : 고흥군



■ 화순군, AI 사전 예방 방역 팔 걷었다

- 방역대책 상황실, 거점 소독시설 24시간 운영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사전 예방을 위해 AI 방역에 발 벗고 나섰다.
- 군은 이를 위해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의심 신고접수 및 발생 시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최근 해남에 이어 무안 등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오는 등 전남지역 내 AI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번 AI 바이러스는 인체 감염률도 높아 방역과 피해예방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 현재 화순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닭·오리 등 가금류 전문사육가구는 30농가에 70만수에 이르며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하는 한편, 22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 거점 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 농가는 매주 2회 농장소독을 비롯해 야생조류 등 출입차단, 축산농가 간 상호 접촉금지, 외부인에 대한 농장 출입통제와 방역상 출입통제 안내문 부착 등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군은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이나 군청 축산진흥담당(379-3654)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화순군



■ 해남군, 청정해남 절임배추로 김장하세요

- 수도권의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된 가운데 청정해남의 절임배추가 인기 상승가를 달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작황 부진으로 배추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편리한 절임배추 시장으로 소비자들의 주문이 몰리고 있다.
-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의 경우 11월 초부터 절임배추 예약판매를 시작한 이후 21일까지 1만 2,000여박스(20kg 기준)의 주문이 완료됐으며,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면서 하루 평균 주문이 1,000여건에 이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해남미소를 통한 절임배추의 주문건수는 벌써 지난해 같은 기간 주문량(6,065박스)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해남 절임배추의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 또한 해남 최대 절임시설인 화원김치가공공장에 따르면 “올해는 배추값 상승 영향으로 김장 시기가 평년보다 더 빨라져 11월 초순부터 하루 평균 70톤 정도의 절임배추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며 “일반 택배 물량을 비롯해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절임배추 2,000~2,500톤 가량을 판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최재문 해남군 절임배추생산자협의회 회장은 “올해 배추 작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생배추 가격 상승과 절임배추를 이용하는 김장이 대세를 이루다 보니 절임배추 수요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포기당 2.5kg 이하 배추, 결구 불량 등 상품성이 낮은 배추는 시장 출하를 억제하고, 절임배추 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전체 생산농가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고품질 절임배추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출처 : 해남군

■ 신안군, 임자뜨란 고인숙대표 농업분야 신지식인 선정

- 지난 11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8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한국생활개선신안군연합회 고인숙회장(임자뜨란 대표)이 농업분야 신지식인상을 수상했다.
- 임자뜨란 고인숙대표는 30년간 대파농사를 지으면서 농산물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대파를 이용한 다수의 가공품을 개발, 특히 전국 최초로 대파즙을 개발 상품화하였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인 대상 대파음식 시식회, LA 한인축제에서도 대파 가공품을 홍보·판매하는 등 해외마케팅에도 남다른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부단히 노력한 공이 인정되어 금번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또한 한국생활개선신안군연합회장직을 맡으면서 열악한 도서지역 여성들의 전문역량 강화와 권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추진 기여 및 각종 봉사활동과 불우이웃돕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 고인숙 회장은 “이렇게 큰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이 상을 받은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농업발전과 사회봉사에 더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신안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국산 딸기 신품종 '금실' 홍콩 첫 수출

- 경남농기원 개발... 상품과율 높고 병충해 강해 내년 4월까지 240톤 수출 -

- 수출용 국산 딸기 신품종 '금실'이 홍콩시장을 개척해 향후 수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 경남농업기술원은 지난 18일 진주시 대평면 소재 농산물직판장에서 수출용 딸기 신품종 '금실'에 대한 생산현장 평가회를 진행했다. '금실'은 수확시기가 빠른 축성재배용 품종으로, 꽃 수정이 잘 되는 편이다. 또한 상품과율이 높고, 병충해에 강하다. 지난해 농가 시험 재배를 시작해 현재 진주 대평면 수출 딸기 재배단지 내 10농가 4ha 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 특히 현장평가회가 함께 신품종 금실의 홍콩 수출 기념 선적식이 함께 진행됐다. '금실' 딸기의 홍콩 수출물량은 내년 4월까지 총 240톤(약 24억원)으로, 향후 기존 주력품종인 매향과 설향에 이어 새로운 수출품종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버섯 수출확대, 포장개선 및 신선도·품질 강조해 중국·동남아 공략

- 우리 버섯의 높은 신선도와 뛰어난 품질을 앞세워 중국과 동남아 시장을 공략한다면, 주춤한 우리 버섯 수출이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 우리 버섯의 지난 2015년 수출액은 3,660만달러로 이는 지난 2013년과 비교해 3.5% 정도 감소한 수치다.
- 품목별로 살펴보면 새송이버섯의 경우 매년 10%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는데 주요 3대 시장인 유럽, 미국·캐나다 등 북미·호주 시장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모두 한국대비 높은 GDP를 유지하는 선진국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수출 가격보다는 안전성이 확보된 품질위주로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 김오복 버섯수출협의회장은 “새송이 버섯은 3년 전 부터 항공으로 수출돼 수출 당일 현지에 도착해서 1주일 이내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며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유럽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과 동남아로 주로 수출되는 팽이버섯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저렴한 중국산에 크게 밀려 수출이 조금 주춤한 상태다. 김 회장은 “우리 팽이버섯 수출업체들이 동남아 시장 수출에 주력해 왔는데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 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대응해 수출 확대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 이에 김 회장은 팽이버섯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포장방법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예를 들어 중국산은 진공상태로 포장하는데 우리는 포장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 상태로 포장한다”며 “이러면 갈변현상으로 인한 품질저하가 일어나 현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기 십상이다”고 말했다.



- 지난 10월 다시 시작된 팡이버섯 중국 수출에 대해서는 시장분석과 품질경쟁력 향상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 그는 “팡이버섯 대중 수출재개는 버섯수출이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하지만 무엇보다 2012년 전·후 해서 수탁판매와 덤핑으로 수출이 중단 된 것인지, 중국시장의 제도와 소비자 기호, 중국내 생산량 및 품질 등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중단된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근거로 신중한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 그는 이어 최근 3년 사이 베트남 시장에서 수출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원인분석도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품질 경쟁력 향상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강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이 가장 문제인 만큼 안전성과 품질 위주의 정책 추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GAP 및 유기농 버섯생산, 항공 수출 및 해운 직항 노선 등을 활용해 신선함을 강조한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수출보조금 철폐에 따른 준비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버섯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화를 기반으로 수출협의회, 수출 선도조직, 수출업체 등이 연합한 ‘수출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시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수출 협의회 주도하에 통합 법인설립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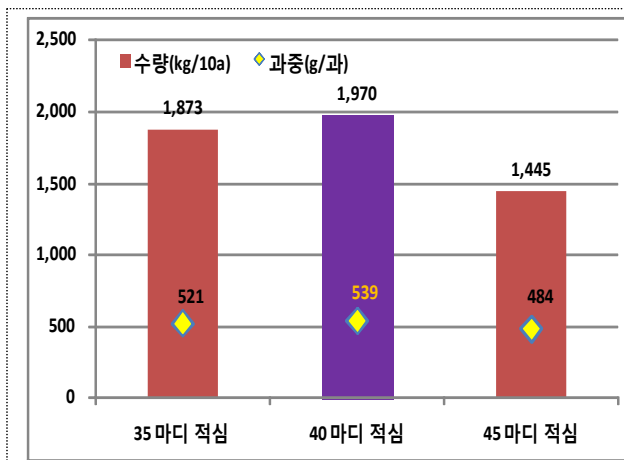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단호박 반축성 무가온재배 최종 적심 마디 설정

□ 개발기술 내용

- 최종 적심 마디는 40마디로 하면 과중이 무겁고 수량이 많아짐
 - 40마디 적심이 과중이 539g으로 무겁고 과폭이 103.1mm로 넓었음
 - 수량은 40마디 적심이 1,970kg/10a로 45마디 적심보다 525kg이 많았음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단호박 교재작성 및 영농교육 교재 활용
- 단호박 재배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재배 단지조성 : 5ha

□ 기술개발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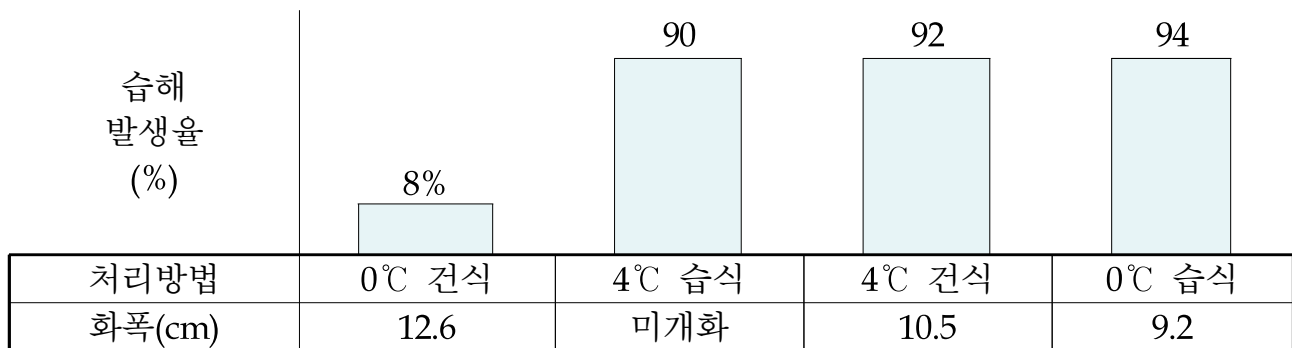
- 단호박 무가온재배 최종 적심 마디 설정(영농)
 - 수량 36%증 : 40마디 적심 1,970kg/10a 관행 유인 1,445kg
 - ⇒ 1,775천원/1,000m²/년 추가 소득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나택상

■ 절화 작약의 수확 후 장기 저장방법

□ 개발기술 내용

- 절화 작약의 수확 후 온도 0℃, 건식에서 2개월 장기 보관 가능
- 절화 작약의 수확 후 습식저장 20일 경과 후 습해가 발생하여 장기 저장에 부적합함
- 절화작약의 저장 방법에 따른 저장 2개월 후 부패 발생율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절화 작약 재배농가 및 농업기술센터에 수확 후 관리자료 제공
- 절화용 작약 수확 후 관리 매뉴얼 제작을 통한 개발기술 보급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절화작약의 수확, 선별, 출하 노동력의 분산
- 절화작약의 저장과 출하 기간 40일 증가 및 습해 82% 감소
- 절화작약 생산기간 중 본당 평균 수취가 증가 : 500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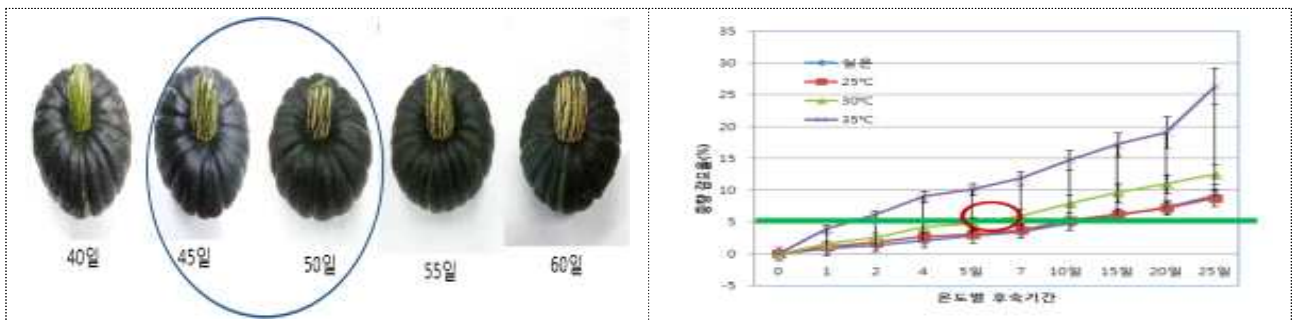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이재신

■ 반축성재배 미니단호박 고품질 출하를 위한 수확시기 및 후숙조건

□ 개발기술 내용

○ 반축성재배 미니단호박 적정 수확시기 및 후숙조건

- 5~6월 수확하는 반축성재배 수확시기 : 수분처리 후 45~50일(시설 반축성)
- 후숙 조건 : 30℃, 5~10일간 예건 시 기호도 및 품질 우수
 - 미니단호박 수확 초기중량의 4~5% 감량까지 예건하는 조건
- 온도별 예건기간 : 25℃에서는 15일, 실온에서는 15일, 35℃에서는 2일 소요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해남·함평지역 재배농가 기술지원 및 영농활용 자료 보급

□ 기술개발 파급효과

- 고품질 미니단호박 상품 출하로 고객만족 및 수요 증대 : 17% 이상
 - 지역특화 작목으로 고품질 미니단호박 출하로 상품 이미지 제고
 - 미니단호박 평균소득액 7,500,000원/10a인데 상품 조기 출하 시 1,310,380원/10a 상승
 - 미니단호박 상품 출하시기 조정 및 조기 출하로 소득증대 효과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오봉운

■ 신품종 육성 흑색토마토 브랜드화 전·후 판매 효과

□ 개발기술 내용

- 신품종 육성 흑색토마토 품종 보급시 「블랙마토」 브랜드 사용
 - 판매가격 33, 농가소득 31% 증
- 「블랙마토」 상표 및 브랜드 개발, 상표출원 완료(2012년 8월)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및 생산자 단체 육성 : 담양·보성
- 생산자 단체에 상표사용권 허락 및 브랜드화 지원

□ 기술개발 파급효과


- 판매단가(kg) 증 : 33%(브랜드화 이전 3,000원 → 이후 4,000원)
- 조수입(10a) 증 : 21%(브랜드화 이전 12,833천원 → 이후 15,584원)
- 소득(10a) 증 : 31%(브랜드화 이전 8,392천원 → 이후 11,006원)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서종분

■ 토양재배 흑색토마토 ‘헤이-지’의 접목 효과

□ 개발기술 내용

- 풋마름병은 접목묘에서는 거의 발병되지 않았으나, 무접목묘에서는 50% 정도 발병되어 식물체가 고사함
- 수량(10a)은 접목묘가 4,623kg으로 무접목묘에 비해 22% 증수

		<div> <div>122 (92.7)</div> <div>100 (78.9)</div> </div>	
		상품수량 (상품율, %)	
구 분		접목묘	무접목묘
과중(g/개)		37.6	31.6
수량 (kg/10a)	상품	4,623	3,762
	전체	4,983	4,767
풋마름병 발병도(0~9)		0	7
【‘헤이-지’ 접목묘 생육상황】		【접목묘와 무접목묘 수량 비교】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접목방법은 합접으로 대목(품종 : 아이플러스)은 고온 신장성과 풋마름병에 강한 것을 사용
- 흑색토마토 재배농가에 영농활용 기술보급과 교육 자료로 활용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접목재배에 의한 상품율 증가 : 13.8%(92.7%, 접목 ← 78.9%, 무접목)
- 소득 증가 : 1,632천원/10a(접목재배 수량 증가분 638kg)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서중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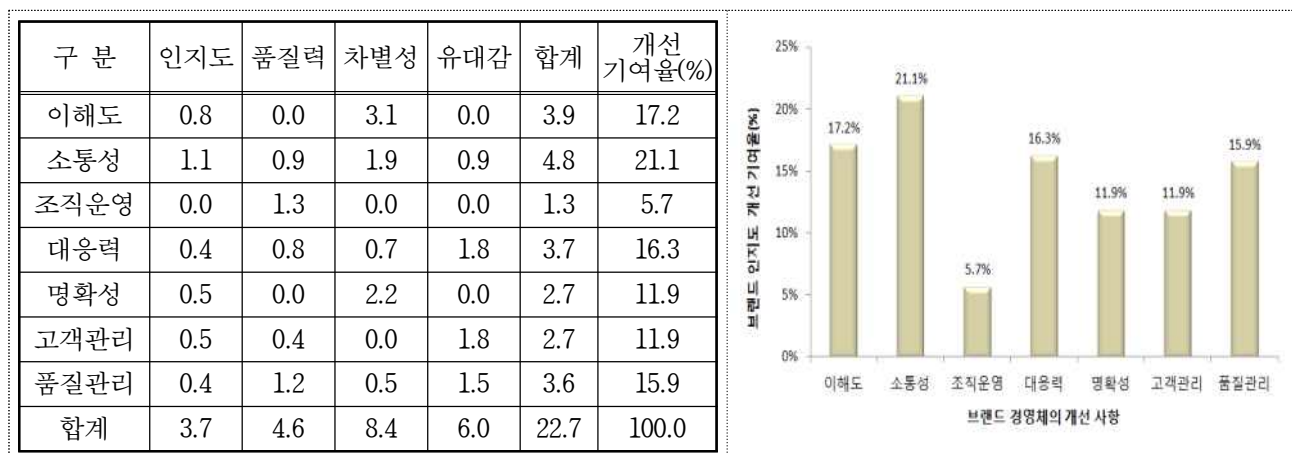
■ 쌀 브랜드 개선에 따른 소비자 인지도 제고 효과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내 농축수산물 브랜드는 타 제품군에 비해 소비자가 차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며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가 저조함
- 브랜드 자산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 쌀 브랜드 매뉴얼 개발이 필요

□ 개발기술 내용

- 쌀 경영체의 브랜드 개선에 따른 노력이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미치는 기여율은 소통성 21.1, 이해도 17.2, 대응력 16.3, 품질관리 15.9, 고객관리와 명확성이 각각 11.9, 조직운영 5.7% 순으로 나타남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농업경영체에 쌀 브랜드 관리 매뉴얼 보급 및 농업인 교육에 홍보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쌀 브랜드 경영체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개선으로 매출액 증대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김덕현, 황인택

■ 차나무 『은녹』 (보성16호)

□ 품종 주요특성

- 수형은 중간형으로 수세가 강함
- 총질소와 총아미노산함량이 높음
- 내한성 및 내병성 강



【은녹 생육전경】



【은녹 화기형태】

□ 재배상 유의점

- 연평균 기온이 13℃ 이상 지역인 남부 해안지역(전남·경남)과 제주
- 산간 내륙지방은 수광 태세가 좋은 남향에 재배

□ 육성 품종 보급계획 및 파급효과

- 공급체계 : 1차 증식(녹차연구소)→시범재배(선도농가)→농가공급
- 단일 품종원 조성 : 생력화 및 수량증대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윤창용

장미 『웨딩마치』 (전남교D1-106)

품종 주요특성

- 생육이 왕성한 연분홍백색의 절화용, 대형계, 스탠다드 품종임
- 줄기 굵기가 일정하고 가시는 중간 정도이며 잎에 광택이 있음
- 꽃모양이 예쁘며 개화가 진행되면서 영국 장미 화형으로 변함
- 꽃에 향기가 있고 수량이 많은 편임



재배상 유의점

- 적정 재식밀도 6,000~7,000주/10a를 유지해야 수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음
- 하계 고온기 재배 시 꽃잎수와 크기가 줄어들 우려가 있으므로 30% 정도 차광재배가 필요하며 응애 등 방제를 위해 주기적인 방제가 필요함

육성 품종 보급계획 및 파급효과

- 품종보호 출원(2015년), 품종보호권 처분, 농가보급(2016년) 분홍색 장미 4% 대체 → 3ha 보급, 로열티 1.8억 절감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기광연

■ 이제는 차(茶)를 마시면서 입는 시대이다

- 녹차·홍차를 마시는 음료에서 입는 제품으로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국내 차(茶) 소비촉진 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녹차·홍차를 마시는 음용에서 입고 생활화하도록 제품변화에 맞게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 하였다.
- 그동안 차산업연구소는 녹차·홍차·떡차·블렌딩차 등 차 종류별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여 일반인들이 차를 마셔서 차의 소비 촉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다.
- 더 나아가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에서 개발한 녹차·홍차를 활용하여 마시는 음료에서 입고 다닐 수 있도록 차 함유 음료제 제품개발을 위해 적정 추출방법, 매염제 종류, 염색방법 등을 개발하여 차 염색제품의 상품화로 또하나의 차 소비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차산업연구소 박장현 소장은 “앞으로 차의 대량소비를 위해 기존 방법에서 벗어나 차를 마시고 먹고 입는 방법으로 차산업의 다각화로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팔바구미로부터 팔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온도 찾아내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팔바구미로부터 팔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온도를 구명했다고 밝혔다.
- 수확한 팔은 겉모양으로 팔바구미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팔바구미는 팔 생장의 성숙기인 10월 상순경에 꼬투리 위에 알을 낳는데,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가 팔알 안으로 들어가 알맹이를 파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 등록된 팔바구미 방제 약제가 없어 수확한 팔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저온저장(11°C 이하, 12°C 이상), 가스주입(이산화탄소, 헬륨, 부탄), 오일(알코올, 겨자유, 편백유) 및 탈산소제(진공, 무진공) 처리를 해 팔바구미가 나타나는지 조사했다.
- 조사 결과, 수확한 팔에서 팔바구미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 보관 방법은 저온저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팔의 저장 온도에 따라 팔바구미의 발육, 출현 등이 달랐다.
- 팔바구미의 발육이 멈춘 온도는 알은 12°C , 유충은 11°C , 번데기는 12°C , 알에서 성충은 11°C 로 조사됐다. 수확했거나 시중에서 구입한 팔을 상온에 두면 이듬해 봄에 팔바구미가 발생한다.
- 즉, 실온에서 보관하면 알에서부터 성충이 될 때까지의 기간이 총 466일도(유효 적산온도 기간)가 소요되므로 봄철 이전이라도 저온(11°C)에 저장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팔바구미는 팔뿐만 아니라 여러 콩과 작물에도 피해를 주는데 산란 선호성은 동부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팔>녹두>콩의 순이며, 강낭콩에서는 산란하지 않는다.
- 성충은 팔>녹두>동부의 순으로 잘 나타나며, 강낭콩 및 콩에서는 성충이 출현하지 않았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콩을 청예작물로 쓰면 양질의 조사료 생산 가능

- 콩 식물체 영양 분석 결과, 조사료로서 우수성 확인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콩을 청예작물로 이용하면 부족한 단백질 보완은 물론 영양 분석 결과 우수한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2015년 조사료 자급률은 전체 가축사료의 16.3%이며 배합사료용 수입 농후사료는 14,628천톤(53.3%)에 이르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2020년까지 수입물량을 70만톤으로 줄이면서 조사료 자급률을 90%까지 높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콩을 푸른 상태로 베어 식물체의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사료용 옥수수나 벼보다 조단백질 및 조섬유 함량과 열량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식물체 100g당 조지방은 콩이 9.2g으로 옥수수보다 1.4배, 벼보다 2.7배 높았고, 조단백질의 경우 콩은 28.5g으로 옥수수보다 3배, 벼보다 3.7배 높았다.
- 콩의 조섬유는 100g당 10.3g으로 벼와 옥수수에 비해 1~3g 정도 더 높아 큰 차이가 없었다.
- 열량을 보더라도 콩은 463.1kcal로 벼와 옥수수에 비해 높았다.
- 콩의 가소화 영양소 총량(Total Digestible Nutrients, TDN)은 80.5%로 벼 83.7, 옥수수 81.4%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콩의 생체에 대한 건물률은 사료용 옥수수(30.7%)와 비슷한 29.9%로 사일리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콩을 푸른 상태로 베어 가축사료로 이용하면 수확일수가 짧아 농업경영비 절감 및 3모작 등을 통해 논밭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다.
- 콩을 푸른 상태로 베어 가축사료로 이용하기 위한 수확일수는 80일로 사료용 옥수수 116, 벼 122일보다 월등히 짧아 맥류 등 동계작물, 옥수수와 함께 3모작이 가능하다.
- 곡실용 콩은 기계화율이 낮은 상태에서 벼보다 생산비가 저렴하고 조사료로 생산할 때 전 과정의 기계화가 가능해 생산비가 더욱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촌진흥청 김병주 중부작물과장은 “콩은 영양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면에서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작물로 앞으로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청예용 콩 조사료 생산을 통해 농가의 수익증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생체시계 조절 유전자로 배추 염저항성 향상 구명

- 염분에 강한 작물 품종 육성에 기여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배추의 생체시계 조절 유전자인 자이간티아(*Brassica rapa* GIGANTEA, 이하 BrGI)의 발현을 억제해 배추의 염저항성을 높일 수 있음을 구명했다고 밝혔다.
- GI 유전자는 빛의 주기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정보를 24시간 주기로 식물에 전달해 식물체 내부의 규칙적인 대사조절 및 방어 기작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생체시계 조절 유전자 중 하나다. 또한 식물의 다양한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기작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연구결과, 배추의 BrGI 유전자를 'RNA 간섭(RNAi)' 기술을 이용해 발현량을 일부 줄이면 생육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염저항성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0.87% 농도의 염화나트륨 용액을 함유한 수경재배 배지에서 BrGI 유전자 발현을 부분적으로 억제한 어린 배추를 2주간 키운 결과, 잘 자라면서 광합성도 잘 유지했다. 반면 일반 배추는 모두 말라죽었다. 또한 BrGI 유전자 발현을 억제한 어린 배추를 1.46% 농도의 염화나트륨 용액을 뿌려주며 3주간 화분에 키웠을 때도 정상적인 모양의 새잎이 나왔다. 일반 배추의 새잎은 모두 심하게 말려 주글주글한 형태를 보였다.
- 농촌진흥청은 배추의 생체시계 조절 유전자인 BrGI의 염저항성 관련 기능 검정에 대해 특허출원(10-2014-0158537)했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적인 학술지인 '플랜트 셀 리포트(Plant Cell Reports)'에 지난 6월 논문으로 게재됐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천적 이용해 겨울철 해충 미리 방제하세요

- 농촌진흥청, 시설재배지 수시 예찰... 밀도 높아지면 추가 방제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오이·토마초·딸기 등 겨울철 시설재배 작물에 발생하는 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사전 관리를 당부했다.
-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해충으로는 오이총채벌레, 목화진딧물, 긴털가루응애, 작은뿌리파리 등이 있다.
- 이들 해충은 외부 기온이 낮아지는 늦가을부터 시설재배지로 들어와 정착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월에 심은 작물의 경우 12월 상순까지 초기 방제를 해야 한다. 해충의 생육초기에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방제가 가능하다.
- 오이총채벌레는 크기가 작아 눈으로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하우스의 입구, 천창, 측창 등 외부와 통하는 곳에 끈끈이 트랩을 사용해 예찰하는 것이 좋다.
- 천적을 이용할 경우에는 오이이리응애를 10a당 10만 마리 또는 애꽃노린재를 1,000마리 정도 투입한다.
- 목화진딧물은 순지르기, 늙은 잎 제거 등을 할 때 세심하게 살펴 서식을 확인하면 바로 없앤다.
- 천적 이용 시 콜레마니진디벌을 10a당 100~200마리 정도 투입하고, 부분적으로 발생이 많아졌을 경우 500마리 정도를 투입한다.
- 긴털가루응애는 시설 내에 벧झ을 깔 때 따라 들어오는데 벧झ을 2주 정도 햇볕에 소독을 하거나, 살비제(응애약)를 벧झ에 뿌리고 말린 다음 사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오이이리응애 등 천적을 이용해 방제할 수도 있다.
- 작은뿌리파리는 끈끈이트랩으로 유인해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퇴비 등 유기물을 뿌린 양이 많은 경우에는 발생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완숙퇴비를 사용한다.
- 이미 부분적으로 해충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 저독성 약제를 이용해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목화진딧물과 작은뿌리파리는 피메트로진 수화제, 플로니카미드 입상수화제, 아세타미프리드수화제 등을 사용한다.
- 오이충채벌레는 크로르헨나피르 액상수화제 등의 성분이 들어간 약제를 뿌리면 된다.
- 긴털가루잎응애는 스피로메시펜 액상수화제, 사이에노피라펜 액상수화제 등을 사용한다.
-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박부용 농업연구사는 “겨울철 시설재배지 해충은 한번 발생하면 외부로 나가지 않아 겨울 내내 해충 피해에 시달릴 수 있어 초기방제가 중요하다”라며 “수시로 예찰하고 발생 밀도가 높아지면 바로 추가 방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 농업·농촌 유망 일자리 직업탐구

◆ 재활승마치료사

□ 어떤 일을 하나요?

- 재활승마치료사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치료 목표를 세우고, 치료 방법을 찾는 일을 주로 하며 부가적으로 말의 상태를 살피고 말의 건강까지 돌보는 일을 합니다.
- 재활승마지도사는 승마를 하는 사람과 말의 안전관리와 지도·교육을 주로하며 재활승마치료사와 마찬가지로 말의 건강관리 업무를 합니다.

참고

재활승마치료사 vs. 재활승마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는 2012년부터 국가전문자격으로 자격시험이 실시되고 있으나 재활승마치료사는 아직 국가자격이 없습니다. 때문에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치료사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재활승마치료사 역할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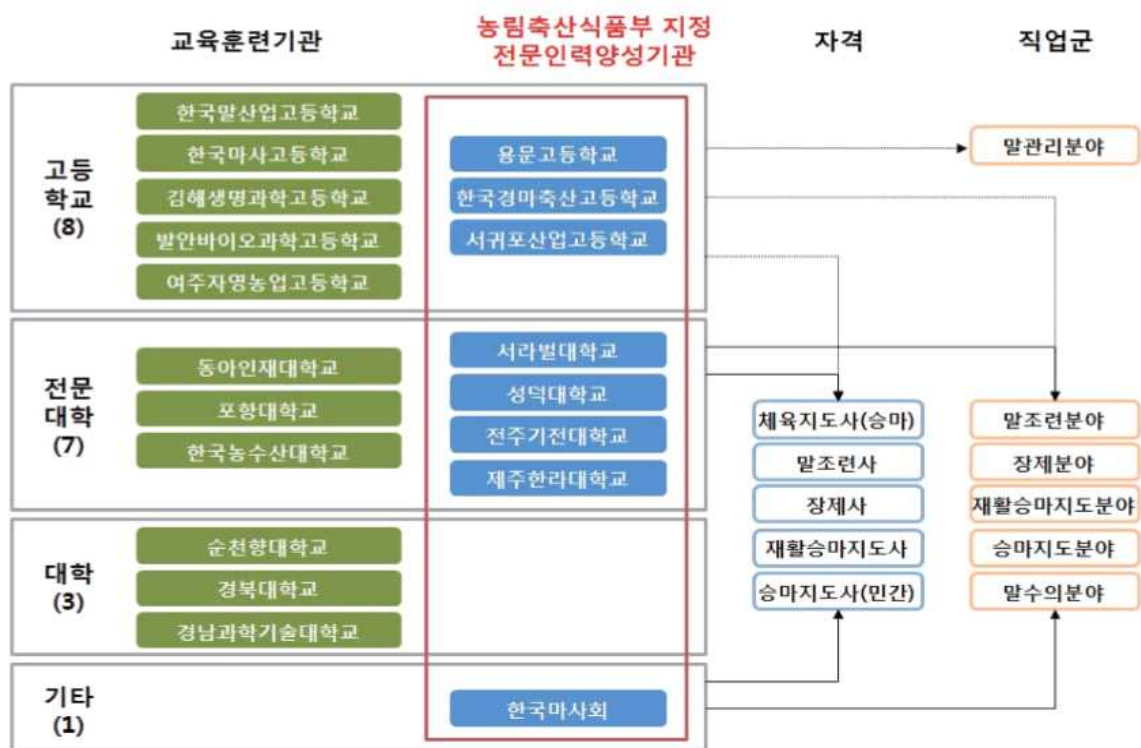
□ 관련 산업현황과 전망은?

- 2011년 ‘말산업육성법’ 제정 이후 2회 실시된 ‘말 산업 실태조사’ 결과 사육두수, 사업체수, 승마 시설수, 승마 인구수 등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조사 결과 말 산업 사업체수는 ‘13년 대비 175개소(9.6%)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말 산업 규모는 (‘12년) 3조 1,399억원 → 3조 2,094억원으로 2.2% 증가하였습니다.
- 고용과 관련하여 말 산업 종사자수는 ‘14년 기준 한국마사회 7,883, 경마 관계자 2,086, 승마 시설업 2,233, 말 사육농가 1,414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 분		'14년(A)	'13년(B)	증(△)감 (A-B)	증감률 (A/B)
말산업사 업체 수	말보유 사업체	1,808개소 (개인 590명)	1,608개소 (개인 319명)	200개소	12.4%
	말미보유사업체	191개소	216개소	△25개소	△11.6%
	소 계	1,999개소	1,824개소	175개소	9.6%
말사육두수		25,819두	24,467두	1,352두	5.5%
승마시설수		395개소	331개소	64개소	19.3%
승마 인구수	정기 승마인구	40,596명	38,867명	1,729명	4.4%
	체험승마인구	771,076명	739,449명	31,627명	4.3%
말산업종사자수		16,091명	15,411명	680명	4.4%
말 산업규모		3조 2,094억 원 (13년말 기준)	3조 1,399억 원 (12년말 기준)	695억 원	2.2%

자료 : 2014년 말 산업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 2014)

□ 관련 기관 및 학교는?



자료 :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 현황(말산업연구소, 2016)

* 출처 : 농촌진흥청

8. 정책 동향

◆ 도내 식품가공 현장 애로기술 연구 협력 추진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난 11월 22일 도내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쌀 가공업체 및 청년창업 경영체 대표와 도·시·군 농산물 가공업무 담당공무원 등 22명이 참여하여 전남 농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공사업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협의회는 도내 가공업체 대표와 관계 공무원간 열린 공간으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그동안 개발한 가공제품과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자리에 전시하여 정보교류를 하였으며, 쌀과 지역 농·특산물 가공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 이외에도, 가공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기술에 대한 수요조사와 해결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애로기술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연결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전남농업기술원 식품연구팀 강정화 박사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도내 가공업체와 농업기술원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애로기술에 대한 협력 연구추진은 물론, 가공현장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고 상생하는 유통체계 조성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법(약칭)」(‘16.6월 시행)에 따라 ‘제1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17~’21년)’을 수립하였다.

□ 주요내용

-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의 안정적 정착 추진
 - 온라인쇼핑 시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컨설팅 및 D/B를 구축(‘17년, 1,000농가)하고, 대도시 소비자를 위해 광역형 직매장을 설치·지원하고, 신도시·공공부지 등에 ‘1도 1대표 장터’를 설치·지원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새로운 수요 창출
 -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외식업계의 조직화를 지원하여 식재료 공동구매를 추진
- 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직거래·유통 창업과정을 운영하고,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를 도입, 카드수수료 인하·농촌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
- ‘21년에 직거래 규모를 4조원 달성(‘15년 23,864억원)하고 유통비용을 연 5,660억원 절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편익에 기여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17~'21)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 구현을 목표로 청년층의 농업 창업을 촉진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 단위('17~'21년)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 비전 :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
- 목표
 - 5년간('17~'21) 청년(2030세대) 귀농 창업 1만 가구 육성
 - 귀농 5년차 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70→90%까지 향상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상생협력으로 농촌 활력 증대
- 전략 : 수요자 중심 교육체계 개편,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소득·일자리·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층 농촌 유입 촉진
 - (청년층 농·창업 지원) ‘청년 창농 교육농장’ 운영, 6차산업 창업 연계 등을 통해 청년층의 귀농 성공모델 창출 지원
 -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귀농·귀촌 교육체계 개편, 품목·과정별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교육 강화
 - (안정적 정착지원 강화) ‘일자리 연계 플랫폼’ 구축,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
 - (귀농·귀촌 저변 확대)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 (융화지원,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융화 프로그램 지원, 귀농·귀촌 민관 거버넌스 구축 운영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AI 경계 단계, 모든 시·군에 상황실 운영

- 전남도, 축산농가 모임 금지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등 당부 -

- 전남도는 23일부터 AI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모든 시·군에서 AI 방역대책본부(본부장 기관장) 및 상황실을 운영,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전남도는 해남 산란계 농가 및 무안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도와 발생 시·군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을 전 시·군에 운영해왔다. 이런 가운데 경계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전 시·군에 AI 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운영하고, 시·군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23일까지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오리농가에 34호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해 모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며, 모든 오리 농가에 대해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역 강화 대책에 따라 이동하는 모든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을 휴대하고 이동해야 하며, 24일부터는 소독 필증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도내 도축장에서 도축을 불허하고 있다.
- 전남도는 시·군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농장철새 도래지 소독 강화로 인한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예비비 4억원을 지원했으며, 추가 확산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긴급회의를 소집해 차단방역을 재차 강조했다.
-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위기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축산농가는 모임(행사)을 금지하고,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AI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하고, 축산농가 및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남도



9. 해외 농업정보

◆ 한식 밀키트로 유럽 시장 공략

- 한 끼 식사 만들 수 있는 밀키트 유럽서 인기... 한식 밀키트 개발 수출 확대 노력 -

- 유럽에서 밀키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식 인기를 발판삼아 장류나 김 등의 우리 농식품 진출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파리지사에 따르면 유럽에서 Meal Kit Service(밀키트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밀키트서비스는 새로운 형태의 식품 구입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면 관련 식재료를 박스에 담아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밀키트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에 접속, 비빔밥을 선택하면 사람 수에 맞춰 고추장과 고기, 채소 등을 손질해 레시피와 함께 전해주는 방식이다.
- 특히 최근에는 밀키트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멕시코의 브리또나 일본의 스시 등 다양한 국가의 음식들을 선보이는 업체들도 많아지고 있다.
- 이에 aT 파리지사는 우리 수출업체들이 관련시장에 눈을 돌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영국을 중심으로 건강식인 우리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재료와 조리방법을 몰라 이를 즐기 못하는 현지인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비빔밥과 불고기 등에 사용되는 고추장·간장·김 등을 제조하는 수출업체들이 밀키트 시장을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인도, 우유 생산량 증대를 위한 호르몬제 사용 중단 경고

- 인도 북부 지방정부가 우유 생산량 증대를 위해 낙농가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호르몬제 사용 중단을 경고함
- 낙농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호르몬제는 인체용 분만 촉진 옥시토신 제제로 전문 의료진이 처방할 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낙농가들이 불법으로 구매하여 젖소에 투여되어 젖소 자체에 유해한 것은 물론 번식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특히 이 호르몬제를 투여하여 생산한 우유를 음용 시에는 인체에 호르몬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조기 사춘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현재 인도의 관련 법은 이와 같은 옥시토신 제제 사용을 인체용으로 국한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수의 가축용으로 사용 시에는 전문 수위사의 처방과 처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분만 촉진용 호르몬제 사용은 우유를 증량하는 것이 아니라 자궁의 수축을 유도하여 우유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우유 흐름을 빨리하여 증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한편 인도정부는 호르몬제 판매와 처방 관리를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11. 28.(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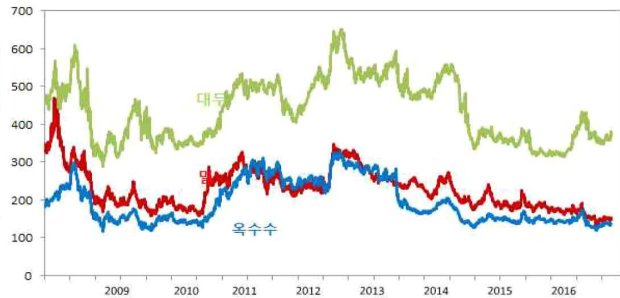
투기적 매수세 및 수출수요로 인해 대두 선물 가격 상승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6.11.28)	전일대비	전월평균 ('16.10)	2015 평균
밀	143.08	▼1.6%	150	186
옥수수	137.16	▼0.2%	138	148
대두	388.01	▲1.0%	359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12월물, 대두: 1월물) 정산가격임.

단위 : US\$/ton



밀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기술적 매도세 및 미국의 풍부한 재고량으로 인해 4세션 연속 하락하였음. 달러화의 강세 또한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밀 선물 가격은 최근 계속 하락세를 보이며 3개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미국 밀 주산지인 캔자스, 오클라호마, 텍사스 지역이 포함된 남부 대평원에 강우 소식이 전해지며 단수 증가에 도움이 될 전망.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풍부한 사료용 곡물 공급량 및 저조한 수출 전망치에 따라 전일 대비 하락하였음. 달러화의 강세 또한 가격에 압력을 주었음. 옥수수 선물 가격은 0.4% 하락한 부셸 당 \$3.47에 마감하였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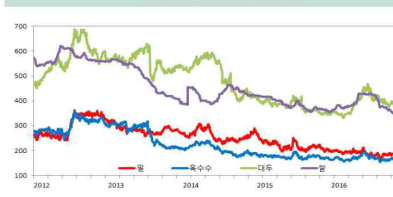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 가격은 투기적 매수세 및 수출수요로 인해 전일 대비 1.0% 상승하였음. 1월물 대두 선물은 지난 밤사이 부셸 당 \$10.65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지난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미청산 계약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팜유 선물 가격 또한 타이트한 공급에 따라 6세션 연속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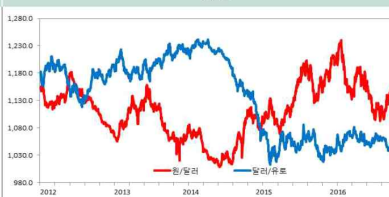
관련동향

- 여전히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추수감사절 휴일로 인해 부재중에 있으면서 겔프 만 곡물 수출 프리미엄은 보합세.
- 28일 국제유가는 OPEC 감산 합의 기대감,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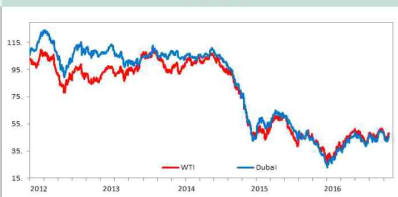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곡물수출가격 (FOB)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환율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밀	180	▼2.2%		원/달러	1,178.9	▼0.3%
	옥수수	160	▼0.6%		달러/유로	1.0599	▲0.4%
	대두	402	▲1.0%		WTI	47.08	▲2.2%
	쌀	355	▲2.6%		Dubai	43.76	▼4.8%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11.25(수출가격), '16.11.28(환율), '16.11.28(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겨울철 재해는 이렇게 예방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겨울철 재해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기상청에 따르면 금년 겨울은 유라시아 지역에 눈 덮임이 많으면서 빠르고, 우리나라 겨울철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렌츠·카라해의 북극해빙 면적이 1979년 이후 가장 적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특히 금년 12월과 내년 1월초에는 남쪽으로 부터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습기를 머금은 많은 눈이 예상되어 비닐하우스, 인삼 재배시설 등 농림시설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겨울철 재해에 조기대응하기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상황실을 예년(12월 5일)보다 15일 정도 앞당겨 지난 11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겨울철 농업 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복숭아·포도 등 저온에 취약한 과수는 나무 밑둥을 보온자재 등으로 싸매주거나 묻어주기
- 시설하우스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내재해형 표준 규격에 따라 설치



- 하우스 시설 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보강지주(보조 지지대)를 2~6m간격으로 설치
 - 하우스 밴드(끈)가 느슨해져 있으면 지붕면의 비닐이 아래로 처져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팽팽하게 당겨주기
 - 눈이 많이 내리면 수시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주기
 - 가온(加溫) 하우스에서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조치
 - 보온덮개와 차광망은 눈이 미끄러져 내리는 걸 방해하므로 걷어 두거나 비닐로 덧씌우기
- 인삼재배시설의 차광망 및 과수원 방조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두면 피해 예방이 가능
- 위와 같은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관리하는 농작물, 농업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될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하여 조기 복구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최근 늘어나는 겨울철 재해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업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전남농업정보

112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